

『미야자키 나무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오면서 외출 자숙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럴 때는 창문으로 밖을 쳐다보거나, 밖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나무와 식물로 마음이 힐링되는 경험을 느껴보신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미야자키 대표 이미지로서 친근한 수목 '피닉스'는 미야자키현을 대표하는 나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미야자키현의 '현의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세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소개 드립니다.

○ 피닉스

아프리카의 카나리섬이 원산지입니다. 해충에 강하고 수명이 길어 피닉스(불사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미야자키현 관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야자키 교통의 창업자인 이와키리 쇼타로씨가 1936년부터 니치난 해안의 피닉스 나무를 다이쇼 초기 처음으로 미야자키시의 텐진야마 공원에 심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남국 이미지가 넘치는 경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쇼와 41년 제정)

○산벚나무



산지에 넓게 자생하는 야생 벚꽃으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며, 봄에는 새싹과 함께 백색 또는 다홍색의 꽃이 피니다. 평균 수명은 200~30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래전부터 와가에도 많은 종류로 유행하고 있는 일본 고유의 벚꽃입니다.

미야자키현 휴가시 출신의 가인(歌人), 와카야마 보쿠스이의 가집 '산벚나무 단가'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의하면 올해 미야자키현의 벚꽃 개화는 3월 하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15년 제정)

○오비 삼나무

오비지방(니치난시 중앙에 있는 지구)에서 약 400년 전부터 니치난시의 관광명소인 '오비성'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오테몬은 수령 100년 이상의 오비 삼나무를 사용하여 1978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테몬을 지나고나면 돌담으로 둘러싸인 4그루의 삼나무가 각 모퉁이에 심어져 있습니다. 4그루의 삼나무가 잘 맞춰진 것으로 '시아와세(四合わせ)삼나무'라고 불려지기도 하여 파워스팟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헤이세이 15년 제정)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나무가 있나요? 나무와 함께 기분 전환하면서 미야자키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MIF)로 연락주시길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miyainfo@mif.or.jp
- 일상 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 외국인 서포트 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